

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

2023. 2. 23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	1
II. 범부처 수출확대 추진 현황	2
III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	5
IV. '23년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	9
1. '23년 범정부 수출 목표	10
2.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	11
3. 新수출동력 확충	15
4.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	22
V. 향후 계획	29

I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수출은 사상 최대실적 달성

○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* 달성

* 역대 연간 수출실적(억불) : ('18년) 6,049(3위) → ('21년) 6,444(2위) → ('22년) **6,836(1위)**

- 日·獨 등 수출 강국이 고전*하는 상황에서 세계 수출순위 6위**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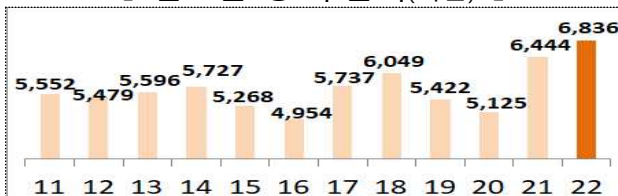
* 수출증감률(%), '21년 연간 → '22.1~11월) : (日) 17.9 → △0.7, (獨) 18.4 → 1.2, (韓) 25.7 → 7.7

** '22.1~11월 기준 수출순위('21년 7위) : 中 - 美 - 獨 - 네 - 日 - 韓 - 伊 - 벨 - 佛 - 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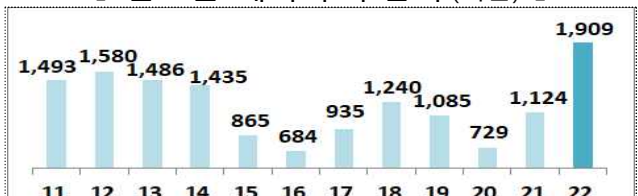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, 에너지 가격 급등*으로 '22년 △478억불 규모 무역적자 발생

* LNG(JKM, \$/Mmbtu) : ('21) 15.0 → ('22) 34.2, 석탄(호주탄, \$/톤) : ('21) 138.3 → ('22) 361.2

【 연도별 총 수출액(억불) 】



【 연도별 에너지 수입액(억불) 】



□ 수출 품목·시장 다변화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특정 품목에 크게 의존

○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, 이차전지 등은 '22년 최고 수출실적

* 수출액('22년, 억불) : (반도체) 1,292.3, (석유제품) 628.7, (자동차) 540.7, (이차전지) 99.8 등

- 원전, 방산, 농수산 등은 새로운 수출주력품목으로 부상

• 원전 :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, 폴란드 수출 가시화 등

• 방산 :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상 최대 수주* 달성

* 방산 수주액(억불) : ('19년) 24.7 → ('20년) 29.7 → ('21년) 72.5 → ('22년) 173

• 농수산식품 : 2년 연속 100억불대 수출 달성 ('22년 120억불)

○ 아세안·美·EU·인도에서 최고 실적* 달성, 對中 수출의존도 완화**

* 수출액('22년, 억불) : (아세안) 1,249, (미국) 1,098, (EU) 681, (인도) 189 등

** 對中 수출 비중(%) : ('18) 26.8 → ('19) 25.1 → ('20) 25.9 → ('21) 25.3 → ('22) 22.8

○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의존도*가 높은 수출구조는 여전히 한계

* 반도체(18.9%), 석유제품(9.2%), 석유화학(7.9%), 자동차(7.9%) 등 5개 품목이 수출의 51.4% 차지

Ⅱ. 범부처 수출확대 추진 현황

1 범정부 수출지원체계 운영

◆ 쏘부처의 ‘산업부化’(22.10.27)·‘영업사원化’(23.2.16) 등을 범정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범부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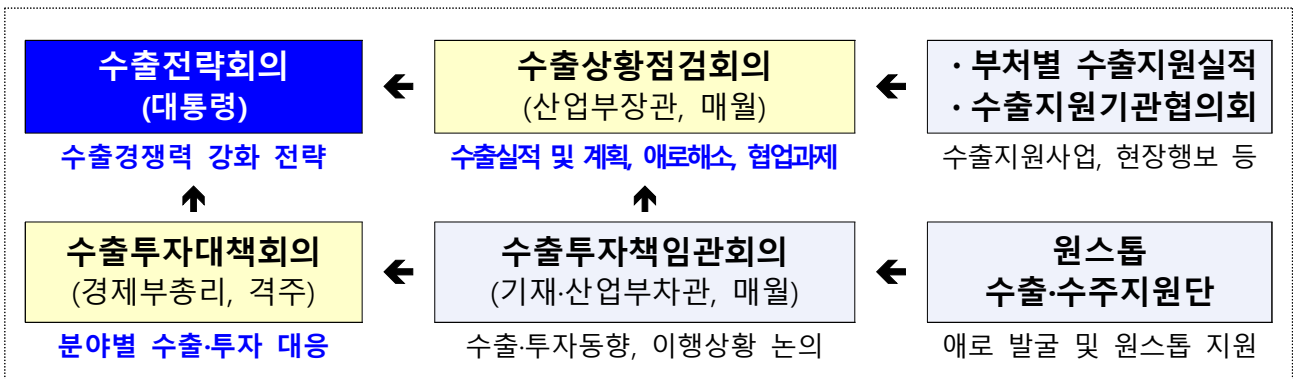
□ **쏘 부처의 영업사원化 및 수출상품구조 다변화 추진**

- 교육부, 국방부, 환경부 등 비산업부처와 관세청, 조달청, 특허청, 식약처 등 지원부처까지 18개 유관 부처의 수출지원정책 강화
 - 스마트팜(농식품부), 에듀테크(교육부), 녹색산업(환경부), 국방산업(국방부)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 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포트폴리오 다변화
- * (농식품부)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운영(22.9), (교육부) 디지털교육기획관 설치(22.12), (환경부)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 구성(23.1), (국방부) 방위산업수출기획과(22.10) 등

□ **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 구축·운영**

- 「수출·투자대책회의」, 범부처 「수출상황점검회의」, 「수출지원기관협의회」 등 부처별 수출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체계 가동
- * 그동안(22.12~23.1) 「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」, 「수출지원기관협의회」 등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수출지원계획, 애로사항 해소,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 등을 논의
- 정상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이행, 현장애로 해결, 수출프로젝트 지원 등을 전담하기 위한 「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」 운영

< 범부처 수출총력대응 체계 >



2 수출현장 애로 해소 노력

□ 수출걸림돌 해소를 위해 335건 현장 애로 발굴

- 수출현장지원단, 수출상황점검회의, 수출상황실, 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

* 수출현장지원단('22.9월~, 14회), 수출상황점검회의('22.10월~, 4회), 수출상황실('22.10~12월) 등
- 물류(24%), 금융(22%), 마케팅(18%), 제도(13%) 등의 현장애로 호소

< 수출현장 애로 발굴 현황 >

물류통관	금융보증	마케팅	제도·통상	인증	기 타	합 계
79	75	59	44	14	64	335

□ 애로사항의 68%(226건) 해소 등 가시적 성과 창출

- 총 335건 중 226건*은 마케팅·금융·물류지원, 제도개선으로 즉시 해소

* 수출신용보증, 물류비용 지원, 수출절차·인증 컨설팅, 기업·시장 정보 제공 등

- 나머지 109건 중 49건(금융·물류·인증 등)은 밀착관리 중이며, 60건은 제도개선 추진 중 (37건 소관부처 수용(부분수용), 23건 추가검토 중)

총 계	해 소	밀착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중 (109건)			
		밀착관리 중	제도개선 (60건)		
			수용	부분수용	추가검토 중
335	226	49	23	14	23

< 제도개선 주요 사례 >

구 분	건의 내용	소관	비 고
해 소	▶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지속 적용	기재	할당관세 연장 ('23.1.1)
	▶ 휴대폰 OLED 패널 한-인도 CEPA 0% 세율 적용	산업	CEPA 양허세율표 포함 ('22.11)
추진 중 (수용)	▶ 사후면세점 납품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인정	산업	대외무역법 개정 ('23.上)
	▶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 국외공급 거래 증여세 과세 제외	기재	상속·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('23.2)
추가 검토 중	▶ 신물질 대상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기준 완화	식약	안전성 등 정밀심사 필요
	▶ 관세사를 통한 사료수입 통관 허용	농식품	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필요

- 추가검토 과제는 「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」('22.11~)에서 집중 관리

① (금융·보증) 수출신용보증 지원,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

애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M社) 컨테이너 운송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, 시중은행과는 차별화된 금융지원 요청 ▶ (S社) 美 오하이오주 및 오클라호마주 전력청으로부터 2,84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, 원자재 조달·제조 등 수출이행자금 지원 요청 ▶ (H社) 540만불 규모의 필리핀 소방차 수출계약을 체결, 제작자금 조달과 선적후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요청
지원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M·S社) 특례인수위원회에 상정하여 M社에 수출신용보증 한도 증액(9.45억원 → 18.45억원), S社에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신규한도 책정(18억) ▶ (H社) 수출채권 조기현금화(외상기간 40일)를 위해 수출신용보증(포괄매입) 신규한도 200만불 책정,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M社) 약 67억원 규모 수주건에 대해 정상 수출 이행 ▶ (S社) 미국 주요 전력청 2개社와 대규모 수출계약(약 400억원) 이행 ▶ (H社) 기존 수출계약규모 540만불(65대)*에서 1,000만불(120대)로 확대(85%↑) 협의중이며, 추후 타국 소방차 계약수주 시 유리한 위치 선점 <p>* '23.1.4일 1차 물량 300만불(24대) 계약체결 완료, '23.3월 선적 예정</p>

② (마케팅·인증) 수출 전 과정 및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

애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F社) 새로 창업하여 수출을 시작한 수출 초보 기업으로, 견적송장 작성, 무역 전문용어 및 특히 마케팅 관련 애로를 호소 ▶ (C社) 美 바이어와 100만불 상당의 엘리베이터 라이다센서 수출 협의 중, 현지 업체의 인증, 규제 문제 제기로 인증 컨설팅 지원 요청
지원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F社) 코트라 자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전(全)과정 컨설팅 지원 ▶ (C社) 인증관련 컨설팅과 美규제 상세 조사를 통해 제품수출 하자여부 확인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F社) 단기간(2개월 內)에 프랑스 수출계약 2건(약 700백만원 가량) 성사 ▶ (C社) 美 바이어와 100만불 규모 수출계약 수주 예상

③ (물류) 물류바우처를 통한 항공 물류비 지원

애로사항	▶ (Y·U社) 중고휴대폰 수출업체인 Y社, 휴대폰 부품수출업체 U社は 최근 높은 항공운임 비용에 따른 수익 악화로 물류비 지원 요청
지원사항	▶ (Y·U社) 미국向 항공운임비용(1천만원) 및 베트남向 항공운임비용(2천만원) 중 일부를 물류바우처 로 지원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Y社) 바우처 지원으로 1억원 규모의 수출 진행, 기업 물류비용 절감 ▶ (U社) 바우처 지원으로 190만불 규모 수출이 진행, 기업 물류비용 절감

Ⅲ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1 '23년 수출 여건

□ [전세계] 세계경기 둔화 속 환율·유가 변동 등 불확실성 상존

- IMF, OECD 등 국제기구는 '23년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* 전망
 - * 세계 경제성장률(IMF, '23.1월 발표, %) : ('21년) 6.2 → ('22년) 3.4 → ('23년 전망) 2.9
 - ** 세계 무역량 성장률(WTO, '22.10월 발표, %) : ('21년) 9.7 → ('22년) 3.5 → ('23년 전망) 1.0
- 미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美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고환율은 통상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으나, 기업별로는 원자재·자금조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
- 유가는 수요(주요국 건축·공급(OPEC+ 감산 등) 동시 둔화로 보합세 전망
 - * 유가 전망(EIA, 브렌트油, \$/B) : ('22년) 100.9 → ('23.1분기) 83.0 → (2분기) 85.0 → (3분기) 83.0
 - 가스는 러·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*할 전망
 - * 가스가격 전망(IHS, JKM, \$/MMBtu) : ('21년) 15.0 → ('22년) 34.2 → ('23.1) 19.0 → ('23년) 20 이상

□ [美·EU] 저성장 등 수출수요 감소와 함께 무역장벽 심화

※ 美·EU 경제성장률(IMF, '22 → '23년, %) : (美) 2.0 → 1.4, (유로존) 3.5 → 0.7

- (미국) 저성장 및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
 - 高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경제성장은 對美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
 - IRA^{인플레이션감축법} 등에 따른 對美 투자 확대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, 소재·부품, 설비 등의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
 - 美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*도 對美 수출 확대로 연계 필요
 - * 인프라투자법('21.11월), 인플레이션감축법('22.8월) 등을 통해 △교통·전력·상수도 등 인프라 현대화, △전기차·배터리·태양광·풍력 등 청정에너지 등에 대규모 투자 예정
- (EU) 러·우 전쟁發 경제충격 속에서 방산·친환경 수출기회 확대
 - 러·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안보 위기는 방산 수주 확대 기회
 - EU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·이차전지 등의 업황 개선 기대
 - CBAM^{탄소국경조정제도}, ESG 실사의무 등 무역장벽 심화는 수출에 부담

□ [중국]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개선 기대

※ 중국 경제성장률(IMF, %) : ('21년) 8.4 → ('22년) 3.0 → ('23년) 5.2

- '23년 中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상황 개선은 對中 수출 확대 기회
 - 다만, 세계경기 둔화, 美-中 분쟁 등 고려시 단기간 내 中 생산·투자의 충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
-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-중간 산업 경합도 심화는 불안 요소
 - 철강·석유화학 등 중간재 부문에서 中 생산능력 급증, 美의 반도체 수출통제 등도 對中 수출에 부담
 - 우리 산업의 높은 對中 소재·부품 의존도*는 對中 수입 확대 유발
 - * 對中 수입 중 對中 의존도 50% 이상 품목 비중(%) : ('10년) 37.6 → ('15년) 41.3 → ('22.上) 67.8
- 新소비 트렌드* 중심 中 소비재 시장의 성장을 적극 활용 필요
 - * (실버) 60세 이상 인구비중 18.9%, (엔젤) 高구매력+低출산율, (1인가구) 독신 인구 2.4억명 돌파

□ [아세안·중동] 新세계공장·자원부국으로서 新수출시장으로 부상

※ 아세안·중동 경제성장률(IMF·WB, '22 → '23년, %) : (신흥국) 3.9 → 4.0, (UAE) 5.9 → 4.1

- (아세안) 글로벌 생산거점이자 제2의 수출시장*으로 부상
 - * 주요국 수출 비중('18→'22년 %) : (중국) 26.8 → 22.8, (아세안) 16.3 → 18.3
 -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역 내 산업생산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, 내수 회복에 따른 우리 수출의 기회 요인도 상존
 - RCEP^{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} 발효('22.2월)로 대규모 경제블록화 전망
 - K-콘텐츠, 화장품 등 한류, 모바일커머스 등 적극 활용할 필요
- (중동) 정상경제외교를 통해 '新중동 붐'을 위한 기반 마련
 - 脫석유 및 산업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, 유가 급등에 따른 풍부한 오일머니는 우리에게 기회 요인
 - 사우디(네옴시티 프로젝트), UAE(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) 등 산유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조기 성과 실현

◆ 글로벌 경기 둔화, 반도체 가격 하락, '22년 상반기 수출호조에 따른
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 수출 감소 후 하반기 반등 전망

□ (반도체·ICT) 올해 하반기 이후 수요 회복 및 실적 개선 기대

- (반도체 🌧️) 수요 급감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상반기 수출 악화
 - * D램 고정가격 전망(\$): ('22.4분기) 2.21 → ('23.1분기) 1.76 → (2분기) 1.56 → (3분기) 1.48
 - 하반기부터 서버 등 고용량 메모리 수요 확대에 수출회복 기대
- (디스플레이 🌤️) 글로벌 수요 감소로 당분간 수출둔화 지속
 - 高부가 OLED 시장(車·가전용, 모바일 등) 확대에 따라 하반기 개선
- (무선통신 🌤️) 프리미엄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일부 수출회복 흐름*
 - * 무선통신 수출 증감률(%): ('22.10월) △5.5 → ('23.1월) △18.9 → ('23.2월) △33.3 → ('23.3월) +17.7
 - 일본·인도 5G 통신망 구축, 첨단부품 수요 확대 등도 긍정적 영향

□ (車·이차전지·선박)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수출 예상

- (자동차 🌤️) 전기차* 수요 확대, 대기수요 등 수출 증가세 지속
 - * 전기차 수출 증감률(%): ('22.10월) +14.4 → ('23.1월) +23.2 → ('23.2월) +46.5 → ('23.3월) +61.6
 - 해외 진출 완성차 기업의 생산확대와 연계해 車부품 수출 증가
 - 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, 美 IRA發 공급망 재편 등은 불안 요인
- (이차전지 🌤️) 전기차 확산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지속 확대*
 - *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(GWh): ('22년) 642 → ('23년) 907(+41%)
 - 국내 배터리 생산능력 확충,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기대
- (선박 🌤️) '21년 수주물량* 및 친환경 선박 수요에 따라 호조
 - * 수주물량(만CGT): ('18년) 1,351 → ('19년) 1,007 → ('20년) 828 → ('21년) 1,764 → ('22년) 1,559
 - VLCC^{초대형원유운반선}·LNG운반선 등 高부가선박이 증가세 견인

□ [석유제품·화학·철강] 단가 하락 등으로 어려운 수출상황 지속 전망

- (석유제품 ☁️) 경기 둔화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*으로 수출 둔화 우려
 - * 석유제품 수출단가 : (22년)127.1\$/B → (23년e)110.8\$/B (△12.8%)
 - 국내 정제시설 최대 가동에도 불구하고, 中 석유제품과의 경쟁
 - 항공유 수요 회복, 글로벌 정제설비 투자 감소 등은 기회 요인
- (석유화학 ☁️) 美·中 공급 과잉에 따른 지속적 단가 하락세* 전망
 - * 석유화학 수출단가 : (22년)1,473\$/톤 → (23년e)1,239\$/톤 (△15.8%)
 - 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회복, 美 한파에 따른 설비 가동 중단, 친환경 제품(바이오플라스틱 등)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일부 개선 기대
- (철강 ☁️) 단가 하락*, EU CBAM 등 불안요인으로 수출 감소 전망
 - * CRU 철강가격지수 전망('94년=100) : (23.1분기) 207 → (2분기) 215 → (3분기) 208 → (4분기) 202
 - 신흥국 조강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
 - 전기차 모터용 전기강판, 에너지용 강관의 높은 수요는 개선 요인

□ [원전·방산·바이오 등] 새로운 유망 수출품목으로 부상

- (원전·방산 ☀️) 러·우 전쟁, 에너지 안보위기 등은 수출 기회로 작용
 - 원전 역할 재조명, 우리 원전 우수성 입증 등으로 수주 확대 예상
 - 주요국 방위비 증강 등에 힘입어 방산 최고 수주액 경신 기대
- (농수산물 ☀️) K-푸드 확산 등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
 - 코로나19 이후 확산되는 건강식 및 간편식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프리미엄 및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증가세 견인 전망
- (의약품·의료기기 ☀️) 견조한 의약품 수요에 힘입어 수출 증가 예상
 -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, 국산 바이오시밀러 해외시장 개척, 의약품 생산 확대* 등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
 - * (C社) 항암항체 제품 美·日·英 판매허가 획득(22.9월), (S社) 신규 생산공장 가동(22.10월)
- (화장품 ☀️) 한류와 연계한 K-뷰티 확산 등으로 수출 확대 전망
 - 엔데믹 후 방역수칙 완화로 제품 전반의 수요 증가 기대

IV. '23년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

목표	<p>국가적 수출역량 결집으로</p> <p>2023년 수출 플러스 달성 (6,850억불, 전년比 +14억불)</p>
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◆ 12개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한 新수출동력 확충 ◆ 범부처 협업으로 수출·수주 총력 지원

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	12개 분야 新수출동력 확충	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
<p>① 新성장제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차전지 ▶ 전기차 ▶ 고부가가치 선박 <p>② 주력제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반도체 ▶ 디스플레이 ▶ 철 강 ▶ 일반기계 ▶ 석유화학 	<p>① 수주전략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원전, 방산 ▶ 해외건설·플랜트 ▶ 녹색산업 <p>② 新수출유망산업</p> <p>〈 농수산식품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식품, 수산식품 ▶ 스마트팜 <p>〈 디지털산업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ICT서비스 ▶ 콘텐츠, 에듀테크 <p>〈 바이오헬스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약품·의료기기 ▶ 화장품 	<p>①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</p> <p>②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</p> <p>③ 수출지원 기반 확충</p> <p>④ 무역금융 지원 확대</p> <p>⑤ 마케팅 및 인증지원 강화</p> <p>⑥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</p>

1 '23년 범정부 수출 목표

- ◆ '23년 범정부 예산(수출지원사업) 1조 5,136억원*, 무역금융 362.5조원** 지원
 - * 산업부 6,692억원, 중기부 2,602억원, 농식품부 1,472억원, 복지부 1,024억원 등
 - ** 무보 260조, 수은 82조, 신보 14조, 기보 3.3조, 산은·기은 2조, aT공사 0.5조 등
- ◆ '23년 부처별 수출·수주 목표 설정 및 수출품목 다변화
 -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12개 분야 新수출동력 확충

(단위: 억불)

영역	분야	주관부처	'21년	'22년	'23년 목표(증감률)		
① 주력산업	15대 제조업	산업부	5,036	5,325	5,330	0.1%	
	① 원전	산업부	-	20*	'30년 10기		
② 수주전략 산업	② 방산	산업·국방부·방사청	73*	173*	173* 이상	-	
	③ 해외건설·플랜트	국토·산업부	306*	310*	350*	12.9%	
	④ 녹색산업	환경부	-	-	150*	-	
	농수산식품						
③ 수출유망 산업	⑤ 농식품	농식품부	86	88	100	13.3%	
	⑥ 수산식품	해수부	28	32	35	10.8%	
	⑦ 스마트팜	농식품부	-	1	1.7	70.0%	
	디지털산업						
	⑧ ICT서비스	과기정통부	149**	155**	178**	15.3%	
	⑨ 콘텐츠	문체부	125**	137**	150**	9.5%	
	⑩ 에듀테크	교육·산업부	0.4**	0.5**	0.7**	25.7%	
	바이오헬스						
	⑪ 의약품·의료기기	복지·산업부	163	164	175	7.1%	
	⑫ 화장품	복지부	92	80	98	23.1%	

* 원전, 방산, 해외건설·플랜트, 녹색산업은 수주액 기준

** ICT서비스, 콘텐츠, 에듀테크는 서비스 수출액 기준

2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

(1) 新성장제조업

① 이차전지 산업부

□ 투자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력 지속 확보

- (투자지원) 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에로 적극 해소
 - LGES 오창2공장 및 SK온 서산공장 등 배터리 공장 조기 완공 지원 및 청주 양극재 공장 재가동 지원 등
- (통상대응) IRA 등에 적시 대응하여 유리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「배터리 얼라이언스」를 통해 민·관 합동 대응전략 마련
- (기술개발) 초격차 확보, 新시장 진출을 위한 R&D 지원 확대(~'30, 1조원)
 - 삼원계, LFP 및 대규모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예타(1,500억원, '24~'28년) 등 배터리 수출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
- (마케팅)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*를 통해 美·EU 시장진출 지원
 - * 인터배터리(3월 한국, 6월 유럽), 배터리전시회(9월, 미국) 등
- (공급망) 광물 확보, 정·제련 등에 3조원 대출·보증 지원(~'27년)

② 전기차 산업부

□ 차세대 기술 확보 및 新시장 개척

- (IRA 대응) 보조금 수혜가 가능한 상용차 판매비중 확대(5→30%), 美 현지공장 조기 준공 등 지원
- (기술개발) 전기차 3대 핵심기술(주행거리·전비·충전속도) 고도화 및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에 R&D 집중 투자
 - * 전기·수소차 핵심기술 개발('20~'26, 3,309억원),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('21~'27, 1.1조원) 등
- (新시장개척) 파라과이, 인니와 자동차 관련 기술교류, 베트남·필리핀 전기차 시장진출 환경 조성
 - * 베트남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 개발('21~'24), 필리핀23인승 전기버스 개발('21~'24)

③ 고부가가치 선박 산업부

□ 인력난 및 금융애로 해소 등을 통한 선박 및 기자재 수출 지원

- **(인력확대)** 외국인력 도입,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
 - 국내 비자발급 절차 단축(4 → 1개월), 기업별 외국인 도입한도 확대(20 → 30%) 및 취업 인센티브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*
 - *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('23년 108.8억원), 수료 후 월 60만원 채용지원금 6개월 지원
- **(금융지원)** 시황 회복기를 고려, 제작금융·RG발급 등 1.9조원 지원
 - 건조자금 확보를 위한 제작금융 지원 확대
 - 특례보증제*를 통해 RG 한도소진 업체의 지속적 수주 활동 뒷받침
 - * (대형社) 한도 초과분의 최대 95% 보증 지원, (중소社) 1,200억원 규모 수출선박금융 지원
- **(기술개발)** LNG 선박 핵심기술*, 무탄소 선박(암모니아·전기 등) 개발
 - * LNG 저장 탱크 및 저압펌프 기술 (현재 선가의 5%를 기술이용료로 지급 중)
- **(판로개척)** 싱가포르, 사우디, 그리스 등 거점 중심 수출상담회 개최

(2) 주력제조업

① 반도체 산업부

□ 국내 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, 인력양성

- **(국내투자)**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*
 - * (대·중견기업) 8% → 15%, (중소기업) 16% → 25%
 - 전력·용수 등 인프라 구축* 및 집적단지 입지 지원 등 글로벌 시장 회복기에 대비한 글로벌 점유율 확대 기반 마련
 - * 평택·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('23년 신규, 각각 500억원)
- **(기술개발)** AI 반도체*, 전력·차량용 반도체, 첨단패키징** (후공정) 등 유망 분야 대규모 R&D 투자 지원(~'31년 2.9조원)
 - * (차세대지능형반도체) 1조 96억원(~'29), (PIM인공지능반도체) 4,027억원(~'28) 등
 - ** (전력) 4,420억(~'30) (차량용) 6,653억(~'31) (후공정) 3,580억(~'31) 등 R&D 예타 추진

- **(반도체 후공정)** 팹리스·소부장기업에 대해 반도체 후공정 소재 및 제조장비 등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('25~'31, 3,580억원)
- **(해외진출)** 해외수요기업 매칭 지원('23년 75.5억원), 수출상담회 개최
- **(인력양성)** 현장 투입이 가능한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(~'31년)

② 디스플레이 산업부

□ 국내 투자 및 초격차 기술력 확보 지원

- **(투자지원)** 10조원 규모 민간투자* 밀착 지원을 통한 생산·수출 확대
* IT용 6세대 OLED, IT용 8세대 OLED 및 QD 디스플레이 등
 -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고, 첨단 패널기업 소재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
 - 신규 설비투자 등에 9,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(산은·기은·신보)
- **(기술개발)** 중소형 OLED 폼팩터 다양화, 대형 OLED 제조원가 절감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술 R&D 지원('23년 875억원)
 - 투명·차량용·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실증('23년 56억원), 무기발광디스플레이(Micro LED 등) 기술선점 지원(1조원 예타 추진)
- **(마케팅)**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 강화

③ 철강 산업부

□ 친환경 기술 및 투자 지원, CBAM 등 통상 대응

- **(기술개발)** 기존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 R&D 지원*(~'30, 2,374억원) 및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개발 추진(~'25, 예타 269억원)
* 저탄소 원료 대체 1,626억원, 고효율 전기로 511억원, 무탄소 연료 전환 279억원
- **(저탄소화)** 민-관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」 구성을 통한 업계 주도 저탄소화 추진, '철강산업 저탄소 펀드' 조성('24년, 1,500억원)
- **(투자지원)** 친환경 설비투자 중심 '23년 3.6조원 정책금융 지원
- **(통상대응)**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피해의 최소화, 對美 쿼터제 운영개선을 통한 수출 지원

4 일반기계 산업부

□ 혁신제품 개발 및 인프라 개발 수요와 연계한 수출 확대

- **(혁신제품 개발)** 건설·농기계 등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전환*, 자율작업 등 지능화 기술개발 등 지원
 - * 전기·수소 등 친환경 동력원 전환 및 충전 인프라 기술개발 지원
- **(인프라 수요연계)** 중동·미국 등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하여 정부 간 첨단제조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
 - * (美) '공급망·산업대화' 플랫폼 활용, (沙) 대형 프로젝트 수주 활동, 합작투자 등
- **(로봇산업 경쟁력 강화)** 제조역량 강화(R&D·인력양성 등 '23년 1,300억원), 사업화 지원('23년 600억원), 규제개선 등 로봇 친화적 환경* 조성
 - *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('23.上),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구축(에타 심사 중)
- **(패키지 수출)** 국내 공공부문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로봇 활용 표준 공정모델 등 패키지형 수출 지원

5 석유화학 산업부

□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첨단시설 투자 확대

- **(저탄소 기술개발)** 석유화학 연료 및 원료 전환을 통한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정비
 - * (기술개발) 탄소중립 R&D 사업 지원('23~30년 1,858억원), 그랜드컨소시엄 구성 등 (규제정비) 친환경 신산업 대비 표준산업분류 개정(~'24) 등
- **(투자지원)** 야한 프로젝트 등 대표 투자프로젝트 지원, 부두·용수·전력 등 인프라 확충*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
 - * (여수) 제2석화부두 건설로 적기 수출입 지원(~23년), (대산) 수원다변화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량 확대(~24년), (울산) 통합파이프랙 구축(26년)을 통한 파이프 증설 등 경쟁력 확보
- **(新시장진출)**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마케팅, 상호인정 등 지원을 통한 EU·美 시장진출 지원

(1) 수주전략산업

- ◆ 원전, 방산, 건설·플랜트 등 수출을 선도할 **대규모 프로젝트** 수주
- ◆ **정상경제외교**,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확대

① 원 전 **산업부·원안위**

□ '30년까지 원전 10기 수주를 위해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

- (시장진출) 국가별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수출성과 본격 창출 **산업부**
 - (체코) 입찰 경쟁력 제고, (폴란드) 수주 가능성 제고에 집중
 - (필리핀·영국) 신규 원전 진출을 위한 국가간 협력채널 구축·활용
 - (UAE·루마니아) 핵연료공장, 안전설비 등 기자재 수출* 적극 추진
- * 원전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프라하 등 원전 중점 무역관 10개 신설('23)
- (규제완화) 해외수출 노형(APR1000 등)의 수출 절차 간소화 **원안위**

② 방 산 **산업부·국방부·방사청**

□ 내수시장 위주에서 새로운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

- (방산+他산업) 원전 수출 등과 연계, 방산 수주가능성 제고 **산업·국방부·방사청**
 - (중동) 사우디, UAE의 脫석유 및 산업 전환 정책*과 연계, 에너지(수소 등)·인프라(건설·ICT 등) 및 첨단산업 협력 확대
 - * (사우디) 인프라 확대 및 자동차·조선 등, (UAE) 첨단제조, 항공우주, 의료 등
 - (유럽) 폴란드(원전)·영국(친환경에너지) 등과 방산 수출 연계 협력 강화
- (수주지원) 현지 수주지원을 위한 방산선도무역관 확대(20 → 31개), 종합수주지원시스템 구축****산업부**,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(1,200억원) **국방부**

③ 해외건설·플랜트

국토부·산업부

□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및 수출사업화를 위한 전방위 역량 결집

- (해외건설) '해외건설수주지원단'(22.12)을 통한 수주역량 결집^{국토부}
 - * 사우디 네옴시티(5,000억불), 인니 신수도 이전(358억불), 폴란드 신공항(74억불) 등
- (수주지원) '해외건설 통합정보시스템'(23.7) 및 수주지원센터(23.3)를 통해 발주·입찰정보 제공, 금융·법률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
- (협력강화) 수주지원단 파견(사우디 네옴시티, 파라과이 경전철 등), 현지 인프라 협력센터 확대(6→7개, '23.6 사우디 신설)
- (해외플랜트) 플랜트 설계·해석 SW 기술개발* 등 기술역량 제고^{산업부}
 - * 플랜트 3D 설계 솔루션인 아베바 E3D Design, 헥사곤 SmartPlant 3D 등
- (해외거점) 거점 무역관에 「플랜트수주지원센터」 확대 추진
- (수주지원) 글로벌 플랜트 발주현황 전수 조사,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「플랜트 자문단」 신설

④ 녹색산업

환경부

□ 민관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협상 및 금융 지원

- (민관협력) 「녹색산업 얼라이언스」*를 통한 사업별 전략적 지원
 - * 얼라이언스 출범 및 협약체결(23.1), 수출금융기관·녹색산업기업 등 33개 기관 참여
- (수주지원) 「녹색산업 수주지원단」* 파견을 통해 수주 협상 지원
 - * 우즈베키스탄(1월), 오만·이집트·사우디(5월), 콜롬비아(10월), 베트남(23.下) 등
- (금융지원)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융자(3.5조원), 미래환경산업 융자(0.4조원) 등을 통한 녹색산업 수출 지원

[2] 新수출유망산업

- ◆ 한류·ICT 융합 등 최근 소비트렌드를 활용한 우리 수출영토 확대
- ◆ 시장별 특화 전략, 전자상거래 활용, 현지 유통망 구축 지원

[농수산식품]

① 농식품 농식품부·산업부·문체부

□ 한류 확산을 토대로 수출 전략품목 육성

- (경쟁력 강화) 수출 전략품목* 육성(프리미엄 포도·딸기 등), 품질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한 농산물 특화물류체계 구축**농식품부

* 수출금액(백만불, '19→'22) : (포도) 24 → 34(45.8%↑), (딸기) 54 → 59(7.6%↑)

** 50여개 딸기 수출업체 약 5,100톤 수출, 물류비 25억원 절감 예상('22.11.~'23.5)

< 신규 프리미엄 농식품 시장진출 전략 >

- ▲ (김치) 효능 홍보 및 레시피 개발·확산을 통해 소비 대중화 촉진
- ▲ (장류) 고추장·쌈장 현지 식자재 시장 공략 및 장류 기반 소스 개발 확대
- ▲ (인삼) 해외 기능성시장 진출 지원 등

- (시장확대) 주요국 쇼핑몰에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(11 → 15개), 한국식품전(K-Food fair), 간접광고(PPL) 등 한류 마케팅 강화농식품·산업·문체부

* 글로벌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(십억불): ('21) 330 → ('23^e) 421 → ('25^e) 523

② 수산식품 해수부·산업부

□ 유망 품목과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현지 진출지원 강화

- (유망품목) '수출 10억불 스타'(김·참치) 등 전략품목* 육성해수부

* 수출금액(백만불, '19→'22) : (김) 579 → 656(13.2%↑), (참치) 572 → 602(5.3%↑)

- (기업육성) 성장사다리 바우처*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해수부

* 시장조사, 브랜드 개발, 마케팅, 국제인증 취득 지원(35개社, 기업별 최대 2.2억원)

- (현지진출) 수출인큐베이팅·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 강화(35 → 40社)해수부,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판촉전 개최산업부

- **(콜드체인)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확충** (농식품·해수·국토·산업부)
 - 농·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, 신선식품의 품질 경쟁력(신선도)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

< 신선식품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관련 부처간 협업 방안 >

- ▲ (농식품부) 유럽·중동 공동물류센터(저온창고) 이용 확대, 아세안 콜드체인 운송지원 강화 등
- ▲ (해수부) 국적선사(HMM)와 협력하여 농수산식품 전용선복 운영 확대
- ▲ (국토부) 항공수출 딸기 품위·선도 유지를 위한 신속 운항 지원
- ▲ (산업부)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(23년 119억원, 1,526개사) 등을 통한 현지 물류 지원 강화

3 스마트팜 농식품부

□ 수출기반 조성, 판로개척 등을 통해 신규 수출산업으로 육성

- **(수출기반)** 해외(호주 등) 현지 '한국형 시범온실' 구축*, 스마트농업 펀드(23년 200억원) 조성 및 스마트팜 수출 용자(1천억원) 지원
 - * '22년 베트남·카자흐스탄 → '23년 호주(1ha 준공, ~12월) + 1개국 추가구축
- **(판로개척)** 「스마트팜 수출지원단」을 통한 현지 법률자문 등 해외 진출 지원(30 → 60건), K-스마트팜 로드쇼 개최(중동, 동남아 등)
- **(협력체계)** UAE·카타르·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스마트팜 협력 MOU 체결·개정, 스마트농업 진출 거점 국가 발굴·진출 지원

[디지털산업]

1 ICT 서비스 과기정통부·국토부·문체부

□ 디지털 전환수요에 맞춰 첨단 디지털산업 해외진출 지원

- **(S/W)** 전략 SW 선정 및 쏠주기 지원(R&D→사업화→마케팅·해외진출), 관련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(제품실증 등) 등 지원 **과기부**
- **(OTT)** '글로벌 OTT 어워즈' 개최(23.10) **과기부**, OTT 콘텐츠 관련 현지화 지원(23년 25억원) 등 해외진출 지원 **문체·과기부**

- **(AI+서비스) AI-서비스(의료 등) 융합 기술 개발* 및 국제 공동연구**과기부**
 - * 폐암·간질환 등 12대 질환 대상으로 24개 의료 AI 개발 지원('23년 99억원)
 - ** (예) 싱가포르 친환경 건물관리 AI 응용기술 개발·실증
- **(시장개척) ICT 수요가 높은 유망지역(중동, 동남아 등) 등 거점국가 중심으로 「디지털 수출개척단」* 파견('23년, 2회)과기부**
 - * 장차관급을 대표로 고위급 양자면담, 비즈니스 미팅, 투자설명회 등 종합 수출 로드쇼 개최
- **(전시회)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('23.9월) 등 부처 협업 전시회 개최과기국토부**

2 콘텐츠 **문체부·산업부·농식품부·해수부·과기부**

□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**K-콘텐츠 위상 공고화**

- **(현지지원) 해외거점 확충(10→15개), 해외거점-수출플랫폼을 연계한 온-오프라인 지원*, 한류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현지정보 제공문체과기부**
 - * (해외거점) 현지 핵심바이어 발굴 + (플랫폼) 온라인 상시 매칭 서비스 제공
- **(금융지원) 역대 최대규모 정책금융 지원*(7.9천억원)문체과기부**
 - * ('22) 5,300 → ('23) 7,900억원 (K-콘텐츠펀드 4.1천억원 + 보증 2.2천억원 + 이자지원 1.6천억원)
- **(한류연계) 간접광고 활용, 해외홍보관 운영, K-박람회 등 K-콘텐츠를 매개로 제조·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문체·산업·농림·해수부**
- **(지재권 보호) 기업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 강화 (특허청·산업·문체부)**
 -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한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 강화
 - 언어별(영어, 중국어) 저작권 침해 정보수집시스템 구축

< 지재권 보호 관련 부처간 협업 방안 >

- ▲ (문체부) 민관 합동 'K-콘텐츠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' 운영, 유관기관 간 협력 제고
- ▲ (산업부·특허청)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지재권 분쟁 상담, 대응전략 컨설팅 등 지재권 분쟁 예방·대응 지원 프로세스 개선(IP-DESK 초동대응 →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장기밀착지원)

③ 에듀테크 교육부·산업부

□ 신규 수출동력으로 육성하여 급성장 시장(연평균 16.3%) 선점

- (수출기반)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 지원 교육부
- (실증·마케팅 지원) 제품·서비스 실증·시연을 위한 소프트랩 확대 추진(3 → 9개소) 교육부, '에듀테크 코리아' 박람회 개최('23.9, 서울) 교육·산업부

[바이오헬스]

① 의약품·의료기기 복지부·산업부·식약처

□ 국내 투자 확대 및 해외 규제 대응 지원

- (바이오경제) 新산업 육성, 기반 구축 등 바이오경제 2.0 본격 추진

구 분	주요 내용
新산업 육성	▶ 바이오 新소재 개발('23년 690억, 바이오플라스틱, 식용소재, 치료소재 등)
	▶ 수송·산업용 바이오연료 개발·상용화(4천억원 예타기획중, 바이오 항공·선박용 등)
기반 구축	▶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·활용('24~'32 9,988억원 예타中)
	▶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, 디지털 제조공정 등 첨단제조 기반 구축

- (경쟁력 제고) 위탁생산(CMO), 바이오시밀러 등 올해 국내 생산공장 차질없이 완공,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산업·복지부
 - '23년 제약 3.8조원, 의료기기 1.6조원 등 민·관 R&D 확대 및 K-바이오백신 펀드 투자(5천억) 및 추가 조성(누적 1조원, '25)
- (판로개척) 유망시장 거래선 발굴 등을 위한 글로벌 수출상담회*, 의료사절단 파견**, 해외전시회*** 한국관 운영 등 추진 산업·복지부

* ('23.3월) 의료기기 수출상담회(GMEP), ('23.9월) 의약품 수출상담회(GBPP) 개최

** (상·하반기 각 1회) 해외 무역관 소재 3개국(선정 중)에 의료사절단 파견

*** BIO USA, BIO EUROPE, EU CPHI, 獨 MEDICA 등 국제 전시회에 국내기업 참여 독려

- **(규제대응)** EU 의료기기 인증기준 강화* 등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에 대비한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**산업·복지부**

* (舊) MDD → (新) MDR 변경('21.5)으로 임상자료 및 시판 후 요건 강화('24.5월, MDD 무효)

- **(인증지원)** 해외 의료기기 인증획득 지원 강화 **(복지·산업부·식약처)**

- EU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획득을 위한 정보획득·컨설팅·비용지원 등 지원 확대

< 해외인증 획득 지원 관련 부처간 협업 방안 >

- ▲ **(산업·복지부)** 의료기기 유럽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14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('22.12.29, MOU 체결)하여 **합동 대응**
- ▲ **(복지부)**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사업('22년~)
- ▲ **(산업부)** 해외인증 관련 정보제공,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(KOTRA, 무협, 인증기관 등),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발족('23.1월) 및 해외인증지원단 출범('23.上)
- ▲ **(식약처)**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(MDR, IVDR) 관련 전문 교육 및 정보제공, EC 및 EU 내 주요국 정례협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수출애로 해소 지원 등

2 화장품 **복지부·산업부·식약처**

인·허가 규제 대응 및 마케팅 강화

- **(규제대응)** 중국 인·허가규제 강화*에 대응하여 국내 제품 원료의 안정성 평가 및 중국 원료등록 지원, 전문인력 양성 **복지부·식약처**

* 신규등록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('22.1~) → '22년 중화권 수출 21.9% 감소

- **(시장다변화)** 일상회복, 한류 확산 지역 중심으로 **홍보판매장*·팝업 부스 운영, 수출컨설팅, 특별관측전 등 마케팅 지원 강화** **복지·산업부**

* 베트남, 러시아, 인도, 인도네시아 등 4개 도시

4

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

- ◆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주력산업 및 12개 新수출동력을 중점 지원
- ◆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판로 개척, 중소기업 지원, 수출 지원기반 확충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촘촘하고 다층적인 전방위 지원 확대

(1)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(전 부처)

① (UAE)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없이 연결

※ (23.1) UAE 정상 순방 계기 300억불 투자 유치, 61억불 규모 MOU 등(48건)

- (경제협력채널) UAE 측과 에너지에너지 파트너십, 첨단산업산업첨단기술 전략회의 등 16개 분야 경제협력 채널 가동
 - '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*'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·지원
 - * 구성 : 위원장(산업부 장관), 관계부처, 수출지원기관, SK, 삼성물산 등 46개 기업
 - 분야별 소규모 '셔틀 경제협력단' 파견을 통한 성과이행 현장 지원
- (에너지협력) 원전바라카 원전 협력, 석유가스UAE 産 석유·가스의 안정적 도입·개발, 청정에너지수소·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·강화
 - * (원전) 제3국 원전 공동진출 및 후속 원전 수주, (석유가스) 제2차 국제공동비축사업, (수소) 수소 공급망, 청정수소 인증, 모빌리티 협력 등
- (新산업협력) 농수산UAE 식량안보 정책 활용 스마트팜 협력, 방산·항공 UAE 방산·항공 육성 및 부품 수요를 우리 中企 직수출 기회로 활용
 - * (농수산) 스마트팜 구축, 아쿠아포닉스팜(스마트팜 & 스마트연어 양식장) JV 설립 등
- (인프라협력) 도시 內 수소생산·활용(친환경수소도시 조성) MOU*, 미래 모빌리티(자율차 등 확대) MOU, 스마트 인프라 MOU** 등
 - * 2025년까지 340억원 투입, 수소충전소 기술을 국내(대전)와 UAE에 현지 실증
 - ** 스마트기술 활용을 촉진해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제고

② [사우디] 「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를 통한 협력 강화

- ※ (22.11)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290억불 규모 MOU 등(26건)
- (신산업협력) 국부펀드(PIF) 활용 투자 협력 및 석유화학·수소 공급망·게임·문화콘텐츠·교육 등 분야별 對韓 투자유치 추진
- (인프라협력) 정상경제외교 성과 및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의 인프라 투자와 스마트시티* 관련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지원
 - * (네옴시티)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프로젝트(5천억불 규모)로 에너지 및 교통, 과학단지, 제조, 엔터테인먼트, 주거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 스마트 기술 적용
- (성과확산)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 협력모델을 카타르·오만 등 중동 국가와 중앙아시아·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

③ [유럽] 원전·방산 및 인프라, 첨단산업 등 전방위 협력 확대

- ※ (22.6) NATO 정상회의 시 프랑스, 폴란드, 네덜란드, 체코 등 주요국 양자정상회담
- (원전수출) 체코차질없는 원전 수주 달성, 폴란드산업·에너지 등 협력 확대, 영국·튀르키예 전략적 협력채널 구축, 루마니아기자재 수출 추진
- (방산·인프라) 폴란드와의 방산수출 계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, 인천공항공사의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 참여 가시화
- (新산업협력) 프랑스미래차*, 네덜란드반도체 장비** 등 첨단기술협력 확대, 슬로바키아, 폴란드 등배터리 투자 협력 확대
 - * 한-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을 통해 자율차 등 6대 분야 R&D 과제에 258억원 지원
 - ** ASML(네덜란드)은 동탄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조성 중(2,400억원 투자)
- (수출활력) 한-EU 수교 60년*, 한-독 수교 140년** 연계 수출활력 제고
 - * 한국문화의 날 행사 활용 소비재 판촉전 및 유통망 입점 지원(해외문화홍보원·KOTRA, 6월)
 - ** 한-독 수교 140년 한독 비즈니스/투자 Summit 개최 추진(독일상의/KOTRA, 6월)

(2)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(중기부, 산업부, 기재부, 조달청 등)

□ 해외진출 능력을 보유한 수출강소기업 집중 육성

- (수출기업화) 정부지원사업(R&D, 바우처, 전시회 등) 및 공공조달 관련 중소·중견기업 수출실적(수출증가율, 수출비중, 수출다변화 등)에 가점 우대
 - '온라인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' 신설('23년 100개社), 바우처·보증료·금리 등을 지원하는 '글로벌 강소기업 1,000+' 지정('23년 1,000개社)
 - * 주요 글로벌 플랫폼 입점, 라이브커머스·SNS 등 마케팅, 통관·배송 등 종합 지원
- (수출시장 다변화) 중등·남미 등 新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 우대 (용자·보증 우선 선발, 금리 0.3%p 할인) 및 수출바우처 50% 확대 지원
- (물류인프라 확충) 보관·운송·통관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항공수출 물류센터 구축(~'24)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(238 → 250개소)

□ 내수 중심 스타트업보다는 수출지향 스타트업 집중 육성

- (수출금융 지원)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대상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하고,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향 및 보험료 할인

구 분	벤처 글로벌 스타	성장 글로벌 스타	전문 글로벌 스타
특별한도(최대)	수출성장금융 10억원	선적전 200억원, 유통화 5백만불	선적전 400억원, 유통화 1천만불
보험료 할인	70%	50%	30%
특별우대	한도 2배 우대, 보증비율 100% 제공,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등		

- (해외진출 지원) 글로벌 펀드*(23년, 누적 8조원)를 조성해 해외진출 지원

* 국내 모태펀드와 외국자본이 공동출자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투자

□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유관기관 지원역량 강화

- (지원역량 강화) 18개 수출지원기관의 역량 강화* 및 협업** 확대
 - * 수출지원기관 재직자 교육(年 100명), 해외조직·인력교류, 정보공유 확대 등
 - ** (플랜트) 수출상담회 공동 개최, (ICT) 'ICT수출협의체' 신설, (식품)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
- (인센티브 확대) 민간 - 공공기관 동반 해외진출 등 협력 노력 및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
 - * 수출·투자·창업 등 해외진출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[3] 수출지원 기반 확충 (산업부, 중기부, 외교부, 기재부, 국토부, 과기부 등)

□ 수출지원기관의 해외거점 간 협업체계 강화

- (기능 연계)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(원전, 방산 등)별 현지 협의체 운영
 - 주요 프로젝트별 T/F (KOTRA, 중진공, KIND, 수은, KOICA 등 참여) 구성을 통해 현지정보 신속 제공, 패키지 협력사업 발굴 및 종합 지원
- (인프라 연계) 수출지원기관 해외지사 설치시 해외무역관(코트라) 우선 활용 및 기관간 인력 교류·파견
 - * (예) (코트라) 사무공간(무역관) 및 현지 네트워크 지원 + (타 지원기관) 전문인력 파견

□ 해외 현지의 국가 수출 핵심 플랫폼으로 코트라 기능 강화

- (무역관 개편)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, 新중동 붐 조성,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을 위해 무역관 및 인력의 전략적 재배치
 - 코트라 조직 진단(~'23.4월)을 토대로 3대 주력시장(아세안·미국·중국) 및 전략시장(중동·중남미·EU) 중심으로 현지 전문인력 보강
 - 원전·방산·서비스 등 유망분야 지원을 위한 특화거점* 확대
 - * 거점 무역관 : 원전(+10개)·방산(+11개)·소비재(+5개)·서비스(+3개), GP센터 : 반도체(+1개) 등
- (지원역량 확충) 범정부 수출확대 지원 및 협업을 위한 수출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추진
 - 수출기업 애로해소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방지원단 확대
 - 수출유망산업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
 - * 코트라 혁신 계획 등에 따른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활용
- (수출목표관리제) 지역본부(10개) 별 '수출목표' 부여 및 본부장·무역관장 평가 반영, 현지 지원을 위한 기업전담 관리제 실시
 - 쏘 무역관(128개)과 수출기업(5,400개社)을 매칭, 현지애로 밀착관리

[4] 무역금융 지원 확대 (산업부, 금융위, 중기부, 기재부 등)

□ 금융패키지 지원 등을 통한 대규모 수출프로젝트 지원 확대

- (금융패키지) 대형 프로젝트(원전, 방산 등)에 대한 무역금융 패키지 제공을 통해 수출·수주 경쟁력 및 해외 신뢰도 제고
 - 무역보험공사, 방사청,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(KODITS), 외국환은행 간 「방산수출금융지원 MOU」 체결 (23.3월)
- (수출파트너 보증)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에 대해 '先프로젝트 심사, 後협력업체 간편심사'를 통한 신속·간편 수출보증 지원(23.3월)
 - * (現) 계약건별 개별심사 → (改) 프로젝트 적합판정시 관련 협력사 '일괄 신속·간편' 심사

□ 범부처 협업을 통한 무역보험 및 융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

- (우량기업 지원) 각 부처가 선정한 우수기업 또는 혁신기업* 등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** 및 지원 절차 간소화
 - * (現) 산업부(소부장 전문기업, 월드클래스 기업 등) → (改) 전부처(혁신기업 국가대표1,000, 중기부(글로벌 강소기업), 해수부(오션스타기업), 복지부(혁신형 제약·의료기기기업) 등 추가
 - ** (우대사항) 보험한도(1.5~2배 확대), 보증비율(90→95%), 보증·보험료 할인(10~20%)
- (금리부담 완화) 수출지원기관(무역협회, aT공사)을 통해 시중은행 대비 2~3% 낮은 수준의 저금리 대출 지원
 - * 무역협회(0.1조원, 특별저리융자지원), aT(0.4조원,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)

□ 단체수출보험 및 고위험 프로젝트 지원 강화

- (단체수출보험) 기업별 신청에 따른 가입방식에서 수출 초보기업 대상 일괄가입 방식으로 중소기업 등 단체수출보험 지원
 - * (지원대상) 年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중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
(지원내용) 최대 5만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보전
(계약주체) 경제단체, 업종별 단체, 자자체, 공공기관 등
- (고위험프로젝트) 국가재건사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수주 신시장 진출 관련 정책금융기관(무보, 수은 등) 지원 확대

(5) 마케팅 및 해외인증 지원 강화 (산업부, 문체부, 복지부, 중기부, 농식품부)

□ [전문무역상사]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

- (인센티브) 구매확인서 발급대상 확대*, 전문무역상사 특화 지원 확충(물류비 지원, 수출상담회 '전문무역상사 전용관', 디지털 마케팅 등)
* (기존) 수출용 원료·기자재·수입제품 → (개선) 수출용 원료·기자재·완제품
- (매칭지원) 전용 플랫폼 확대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매칭 지원
- (시장개척) 전문무역상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* 및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관측전 개최(7 → 11개국)
* 전문무역상사 해외지사 활용, 제조기업의 현지지사 역할(바이어 발굴, 통관 등) 대행

□ [해외전시회]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형 해외전시회 지원

- (부처협업) K-POP 공연 등과 연계한 범부처 합동 K-박람회* 개최 및 해외 주요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 확대 (19 → 30개)
* 산업·문체·중기·농식품·해수부 등 공동 주관('23년 프랑크푸르트, 방콕)
- (지원체계)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준 개편*, 복수 부스 제공 등
* (전시회) 성과평가 배점 상향, 유망전시회 선정을 위해 시장성·성장성 평가요소 반영 (참가기업) 기업·품목 경쟁력을 평가요소에 반영, 수출성과와 무관한 가점 정비

□ [해외인증]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소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

- (지원체계)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민관 합동 해외인증지원단」* 개소 ('23.上)
* 국표원, 중기·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, 코트라, 표준협회, 시험기관 등
- (정보제공) 인증정보 포털 구축을 통해 해외인증정보 종합 제공
- (시험·평가) 주요 해외 인증의 국내 시험가능 품목 확대(120 → 150개)
- (컨설팅) 품목·국가별 해외인증 제도 설명, 국내 인증대행(제품시험) 기관 연계, 정부·기관 지원사업* 안내 등 원스톱 컨설팅 지원
* KTR(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), 무역협회(비관세장벽 대응 지원), KOTRA·중진공(수출바우처) 등

[6]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(산업부, 기재부, 중기부, 국조실, 관세청 등)

□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

- **(기반확충)**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*(3 → 9개), 상품정보 카탈로그 디지털 전환(年 3만개) 확대, 디지털 청년 무역인력 양성**(年 1,500명)
 - * ('22) 서울, 구미, 대전 등 3개소 → ('23) 부산, 광주, 울산, 고양, 인천, 원주 등 6개소 추가
 - ** (코트라) 디지털 무역 쏠주기 교육, (무역협회) 청년 무역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
- **(플랫폼 고도화)**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(UTH 2.0) 고도화*를 통해 수출입 화물 추적, 전자상거래 지원 등 e-물류·전자무역 지원 기능 강화
 - * U-TradeHub : 무역 관련 문서·업무를 전자문서·정보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

□ 무역보험 사각지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

- **(무역보험지원 확대)** 무역보험 사각지대*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年 1,000개 기업의 신규 무역보험 지원
 - * 무역보험 미활용 수출기업, 수출준비기업, 무역보험 이용중단 기업 등
 - 비대면 상담 및 시중은행 영업망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강화
 - * 신한은행,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추천한 2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추진

□ 無통관수출을 상품수출 수준으로 지원

- **(지원기반)**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*하여 서비스 무역통계를 고도화하고,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 간소화**
 - *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('22.12)
 - ** 상품무역(통관수출)은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수출실적 발급이 가능하나, 서비스(無통관수출)는 수출계약서, 외화입금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 요구
- **(맞춤형 지원)**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사업 확대,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및 세제혜택* 확대 등
 - *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시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공급 거래 과세 제외

V. 향후 계획

- ◆ 범정부 수출지원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체계 구축
- ◆ 목표관리 + 애로해소 + 협업과제 등을 통한 쏘 부처의 수출 역군화

□ (목표관리) 부처별 수출·수주목표의 차질없는 이행 및 점검

- 부처별 '수출·투자책임관' 운영, 수출목표 달성에 역량 집중
-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*은 수출전략회의 등에서 논의·확정
 - * (예시) 바이오, 원전, 해외건설·플랜트, K-콘텐츠, 디지털무역, 중기수출 등
- 산업부는 부처별 추진실적을 월별 점검, 수출전략회의 보고
 - 부처별 목표 대비 실적, 애로해소 성과, 협업과제 실적 등 점검

□ (애로해소) 수출현장 애로사항 지속 발굴 및 해소

- 부처별로 현장행보 등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지속 발굴·해소
 - * 무역금융·물류·인증 등 개별 애로는 특례 보증, 수출바우처,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 등을 통해 즉시 해소
- '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'은 애로사항 현황을 종합 관리·지원
 - * 각 부처별 애로접수·해소 → 미해결 시 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에 이관·관리 (각 부처의 애로해소 실적 및 지원단 관리 현황은 수출상황점검회의 보고)

□ (협업과제)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업기반 구축

- 마케팅·인증·물류·금융 등 분야별 다부처 협업과제 지속 발굴

< 주요 협업과제(예시) >

구분	주요 내용	주관/협업부처
① 마케팅	▶ 통합전시회 등 다부처 협업마케팅 강화	문체부/산업·농식품부
② 물류	▶ 신선식품 콜드체인 운송 물류인프라 확충	농식품부/해수·국토부
③ 인증	▶ 해외 의료기기 인증획득 지원 강화	복지부/산업부·식약처
④ 금융	▶ 원전, 방산 등 대형프로젝트 무역금융 패키지 제공	산업부/국방부·금융위

- ◆ 산업부는 「수출상황점검회의」 등을 통해 각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,
 - 수출현장 행보,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(부처간 1+1 원탁회의 등), 수출지원예산 조기 집행, 협업과제 추진 등 각 부처의 신속한 이행 점검